

# 금속노조의 단호한 총파업으로, 범사회적 정몽구 처벌 요구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쟁취하자!



### 모든 국민들이 지지하는 비정규직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점거 파업이 열흘을 훌쩍 넘겼다. 사측은 여전히 귀를 틀어막고 교섭조차 거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24일 금속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에 5천명이 넘는 투쟁대오가 정문 앞을 가득 메웠다.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 사회 여론은 파업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이번 비정규직지회 파업 투쟁에 대해서는 파업이 장기화되어도 오히려 지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조중동 보수언론과 경제 일간지들 일부가 불법파업과 파업 손실 운운하며 구태의연한 여론 선동을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 며칠만에 이들의 악선동도 쏙 들어갔다.

2000년대 내내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사회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해

고된 대부분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되었고,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은 처음부터 비정규직 인생이 되었다.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비정규직 자식의 인생을 걱정하는 정규직 부모부터, 비정규직 인생에 좌절한 청년들, 차별 속에 십 수 년 일하며 가슴에 한을 쌓아둔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모두가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뒤에는 지금 4천만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

###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갖가지 '중재안'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지지와 주체의 강고한 투쟁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갖가지 중재안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점거 파업을 시트 사업부 동성기업의 고용승계 여부로 축소하고, 비정규직지회와 직접교섭을 회피하는 사측에 대해 정규직지부가 대리교섭을 진행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당장 한 달 전에 있었던 KEC 사태를 떠올려 보자. 야5당이 사회적 교섭을 이야기하며 중재

안을 가지고 KEC지회의 점거파업을 중단시켰지만 결국 사측에게서 나온 것은 수백 명의 구조조정안과 주요 간부에 대한 징계뿐이었다. 김준일 지부장이 분신했거까지 하며 만들어 낸 노사 교섭은 노동자들의 실질적 파업 효과가 사라지자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작년 쌍용차 점거 파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점거 파업을 중단하며 맺은 노사합의서는 쌍용차지부가 공장에서 쫓겨나자 현재까지도 단 한 조항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

교섭은 노동조합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사측의 양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점거파업과 범사회적연대로 힘을 키워가고 있는 지금 정규직화와 직접교섭을 쟁취하지 못하면 이후를 장담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삼모사가 될 가능성이 큰 중재안이 아니라 현대차 사측의 숨통을 잘 연대투쟁이다. 현대차 정규직, 비정규직과 금속노조 전체 대오가 정규직화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단호한 태도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 현자지부, 단호히 파업에 나서야

현대차지부가 다음 월요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비정규직투쟁을 진취적으로 엄호할 수 있는 결의를 기대해 본다.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 대부분의 자녀는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갈 처지다. 또한 정규직 자신들도 매년 고용불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 현대차는 지난 수년간 정규직이 퇴직한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거나 노동강도 강화를 통해 해결해 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단지 연대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에서 인간다운 노동을 하기 위한 정규직 자신의 과제다. 이번 점거 사태를 해결한다는 제3자적 태도가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하다.

금속노조는 11월 22일 결의한 12월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된 패배에 금속노조 생존까지 의심받고 있는 조직 전망을 불법파견 철폐 투쟁 승리로 바꾸어 낸다는 결의를 모든 간부들이 함께 해야 한다. 이는 금속노조가 현대차지부의 파업 결정 여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5만 전체의 투쟁을 자기자신의 투쟁 전망 속에서 산별답게 조직하는 것일 것이다.

### 범사회적 정몽구 처벌 요구로 승리를!

마지막으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점거 파업을 엄호하는 것과 더불어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온갖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악행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재벌 오너에 대한 처벌 요구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작년 경제 위기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듯이 재벌 대기업은 국민 경제를 수탈하여 자신들의 부를 늘린다.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재벌에게는 돌도 없

는 기회였다. 심지어 재벌 대기업들은 하청 업체, 부품사 노무 관리까지 개입하며 전국적 노조 탄압을 정권과 함께 지휘하고 있다. 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정몽구에 대한 처벌 요구를 범시민적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금속노조의 단호한 총파업으로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를 향해 한걸음, 또 한걸음 가슴 벅차게 나아가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더욱 넓게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현대차 사측은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가 강고하게 버티며 현대차 노동자들이 좀 더 크게 연대하고, 금속노조가 산별다운 투쟁을 조직하며 범진보진영이 재벌오너 정몽구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강화한다면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 연평도 사태, 적대적 군사행동의 비극적 결과 노동자의 손으로 반전평화를 이루자!

### 북한이라는 '절대반지'

연평도 사태 직후 조선일보는 '비상한 시기에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려는 분열적 책동을 경계하고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분열적 책동'이 무엇인지는 뻔하다. 남한 지배세력은 북한이라는 존재를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를 짓밟는 '절대반지'로 활용한다. 그리고 남북한 대립이 격화되어 위기가 고조될수록 지배세력은 손쉽게 민중들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책임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것이다.

### 노동자가 반전평화운동에 나서야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다. '남북한 대립 → 위기고조 → 이를 빌미로 하는 탄압'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저들이 더 이상 민중들의 생존을 불모로 위협천만한 게임을 벌일 수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

다. 노동자들의 반전평화운동은 우리의 평화적 생존과 함께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밑거름이다.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이 반전평화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남한과 북한의 자동차 게임

연평도 사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외교적 노력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며 어깃장을 놓고, 미국 핵항공모함까지 들여와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한다. 보수인사와 언론들은 연일 군사적 보복을 선동한다. 민간인 거주지까지 포격한 북한이나 이에 대응하는 남한이나, 누구 하나 핸들을 돌릴 생각 없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자동차 게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 게임에 남북한 민중 전체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이다.

### 군사력 경쟁의 비극적 결과

남북한의 군사력 경쟁은 상호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적대 정책과 호전적인 전쟁연습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한쪽의 군사력 강화는 결국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쟁의 사슬은 점점 더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 뿐이다. 군 당국이 주장하는 '통상적', '방어적' 훈련조차 연평도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자.

### 서해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군축이 절실하다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위협적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방위력개선 사업에 1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붓겠다고 한다. 군사력 경쟁과 충돌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은 또다시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짓밟는 철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남한에서부터 군사력 경쟁과 충돌 요인을 제거하는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군사훈련 중단! 적대정책 강화하는 군사력 증강 반대! 노동자 민중의 단결로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드높이자!